

강진읍지사협, 찾아가는 다누리 행복마을 추진 호응

강진군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6일 장동마을회관에서 장동·팔영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누리 행복마을' 사업 4회차를 추진했다.

찾아가는 다누리 행복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 건강, 안전, 문화, 생활 분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4회차 행사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소 혈당·혈압 측정과 물리치료 버스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했다. 강진소방서는 소화기 24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화재 예방교육과 소화기 사용교육을 병행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이 밖에 장수사진, 노인 레크리에이션, 팔찌·브로치 만들기 체험, 염색·커트, 소규모 집수

리, 네일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각 분야의 재능기부자와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탰다.

주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를 가까운 마을회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임창복 공공위원장은 “찾아가는 다누리 행복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마을 현장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운재 기자



다누리 행복마을 행사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재가암 환자 및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남악건강증진센터에서 총 5회에 걸쳐 재가암 환자와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재가암 환자 및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재가암 프로그램은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뒤 가정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에게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을 비롯해 천연비누 만들기, 요리활동, 팜업북 만들기, 원예치료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줬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재가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삶의 질 향상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도서 기증 받아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등 아일랜드 문학·문화 담은 도서 기증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대사 미셸 윈트립)이 지난 29일 목포어울림도서관을 방문해 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번역도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은 아일랜드 문학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아일랜드는 제임스 조이스, W.B. 예이츠, C.S. 루이스 등 세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들을 배출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에는 제임스 조이스의 대표작 「율리시스」를 비롯해 아일랜드의 문학과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됐다.

한편, 목포어울림도서관은 기증 도서를 비롯해 아일랜드 문학과 대표 작가들을 소개하는 특별전 '문학의 나라, 아일랜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농가당 70만 원”...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완료

전남 함평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완료했다.

함평군은 30일 “올해 상반기 농가당 7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 7,941명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다.

군은 1차 7,57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지급을 완료했으며, 지난 29일부터는 추가 신청자 362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총액은 55억 5천8백70만 원이다.

올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해 60만 원이었던 수당을 10만 원 증액해 농가당 70

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평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농어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6월분 지급

신안군은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6월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달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이다. 전출자, 사망자, 비거주자, 5월에 신청한 *신규 전입자 등은 제외됐다. 다만 3월에 신청했으나 지급이 유예됐던 신규 전입 주민에게는 3개월분(60만 원)을 일괄 소급 지급했다. *2025.10.20. 이후 전입한 자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1004패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카드는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매출액 30억 원 초과 대형 사업장과 유흥·사행성·환전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전한 나라사랑 마음

영암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암청년회와 청소년들이 함께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가정을 찾아 국기봉을 교체·설치하고 태극기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영암청년회원 25명과 청소년 7명 등 모두 3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곳곳의 참전유

공자 가정을 방문해 노후된 국기봉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고, 태극기와 참전유공자 명패를 전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청년과 청소년들은 참전유공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삶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문수 기자

세대가 함께 참여한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에게는 보훈의 의미를 배우는 계기가 됐고, 청년들에게는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봉사의 의미가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이번 활동은 세대가 함께 참여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연대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문수 기자

